

국가별 동향



루마니아

루마니아 의원, 유권자들에게 후라이드 치킨 60톤 샀다가 감옥행



루마니아의 국회 의원 플로린 포페스쿠가 유권자들에게 후라이드 치킨을 대접했다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

았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포페스쿠 의원은 지난 2012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자들에게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는 의미로 후라이드 치킨 60톤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반부패 조사단은 후라이드 치킨을 ‘접대’ 하는 과정에서 포페스쿠 의원이 업자에게서 8만5,000파운드(약 1억4,000만원) 어치의 후라이드 치킨을 확보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2012년 4월 5일 포페스쿠 의원이 사람 몇 명을 보내 차량에 후라이드 치킨을 실었고, 그것을 여러 지역에 나눠줬다”면서 “모든 치킨은 선거 유세 목적으로 쓰였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치킨 판매업자가 당국에 포페스쿠 의원을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

게 됐다. 포페스쿠 의원은 이달 초 “의회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의원직을 내려놨다.

[국민일보]



미 국

“김치담그냐?” 부활절 ‘염색 병아리’ 논란



세계 각국에서는 방식은 달라도 부활절에 계란을 주고받는 관습을 통해 부활절을 축제

의 날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 일부 외부 국가에서는 계란을 전해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눈 것을 넘어 염색된 병아리를 선물로 주기도 한다. 영국 ‘미러’가 소개한 영상 속 상자 안에는 갖가지 색깔로 염색된 병아리들이 모여 있다. 다양한 털색깔을 가진 병아리들이 얼핏 보면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이 병아리들의 털이 염색되는 방식은 매우 끔찍하다. 염색 방법은 병아리들을 큰 대야에 넣고 초록색 식용색소를 뿌린다. 그리고 식용색소가 잘 섞이도록 하기 위해 병아리들을 마치 감장을 하듯 버무린다. 이러

게 염색된 병아리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팔렸다. 병아리들이 부활절 절기의 상술 수단으로 이용 되는 것 같아 씩씩하게 다가온다. [국민일보]



중 국

닭다리에 쌍꺼풀 수술 연습... 中 성형학원 실태 '경악'

중국에서 성형 미용 시장에 커지면서 무면허 성형학원과 시술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성형 미용학원에선 닭 다리로 쌍꺼풀 수술 연습을 한 수강생이 사흘 만에 시술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성형학원의 수강료는 한화 100만 원 정도로 비싸지만 수강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시술을 한 건만 해도 수강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무면허 성형학원 일부는 시술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위생 관념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장갑을 재사용 하는 건 예삿일이었다. [헤럴드경제]



일 본

“부활절도 마케팅 호기로”...일본 기업들 ‘계란 마케팅’ 붐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부

활절을 상업적 마케팅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식품메이커 등을 중심으로 관련 상품을 발매하거나 캠페인을 기획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내시장 축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헬러윈데이에 다음가는 마케팅 기회로 활용해 소비를 살려내고 싶다”며 많은 회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부활절에 생명의 상징이라는 계란과 관련된 장식을 하거나, 계란요리를 먹는 것 등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계란’ 관련 상품의 발매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도 계란수출, 전년대비 1.5배로 급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의 계란 수출금액은 6억엔(약 62억원), 수출량은 2,335톤으로 과거 최고 수준 달성했다. 2011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영향으로 수출량이 급감하였으나, 2012년 이후 회복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 1월 기준 수출 상대 국가별 위생 조건 등을 인정받은 계란유통센터는 홍콩이 103개소, 싱가포르가 5개소이다. 일본은 2020년도 계란수출 목표로 금액기준 26억엔, 물량기준 1만 톤을 설정, 고품질을 내세워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출전략으로는 ‘일본축산물수출촉진협의회’ 주도 ‘올·재팬(ALL JAPAN)’ 체제 확립, 전골용 화우요리와와의 콤비네이션 등 일본 식재료와의 일체적 판촉, 해외 일본공관과 협력을 통한 판촉활동 등이다. [일본 농림수산성] **양계**